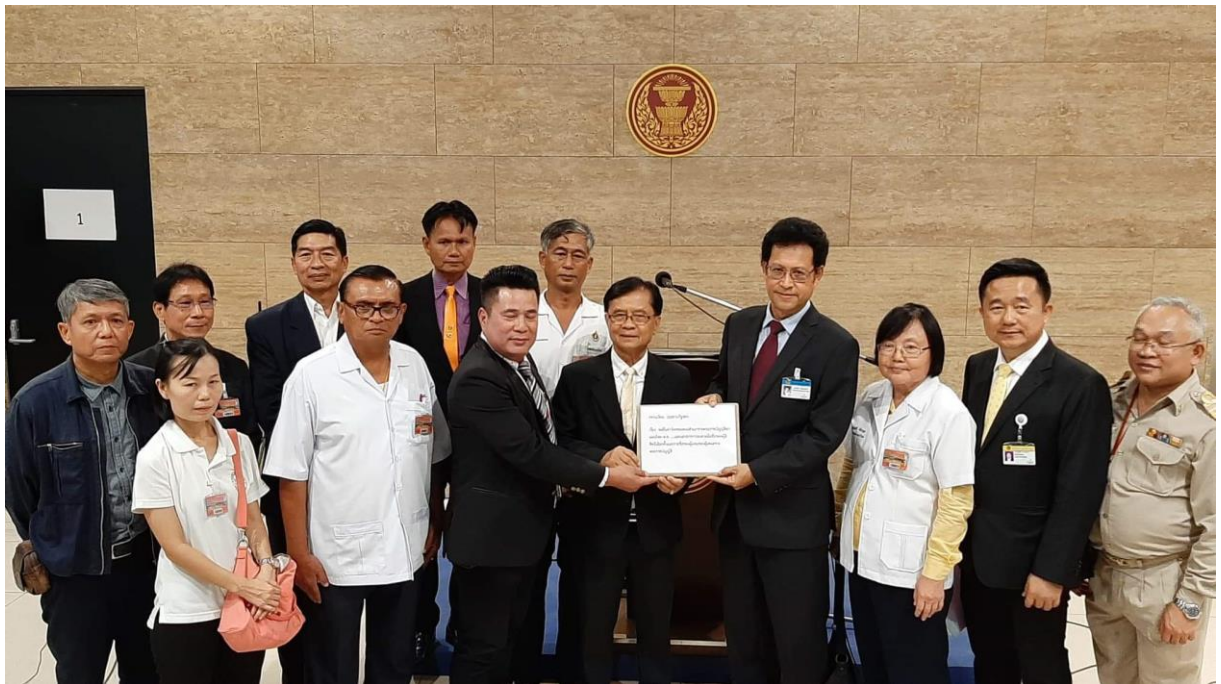


태국 하원의장의 고문께서 태국전통의약 개업의 대표가 제출한 타이전통의학에 관한 법안을 수락했다.



2019년 9월 18일에 하원의장의 고문께서 태국전통의약 개업의 대표에게서 타이전통의학에 관한 법안을 수락했다. 이 타이전통의학에 관한 법안은 민간단체로서 현 하원에 발의된 첫째의 법률이며 국가유산인 타이전통의학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쑤깃 앳토파껌 (Sukit Atthopakon) 태국 하원의장의 고문께서 추언 릭파이 (Chuan Leekpai) 태국 하원의장의 이름으로 싸얀 프롬디 (Sayan Promdee) 태국전통의약 개업의 대표에게서 타이전통의학에 관한 법안 제출을 수락하였다. 이 법률 초안의 주요 내용은 태국인의 지혜로 만들어진 타이전통의학 및 태국전통의약을 관리하여 감독하는 법이라고 싸얀 프롬디 (Sayan Promdee) 가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이점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태국전통의약 및 타이전통의학에 대한 복용 및 판매의 통제법이 아직 없고 만약 이 법률은 발효한다면 태국인의 지혜로운 상속이 되도록 태국전통의약을 지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쑤깃 앳토파껌 (Sukit Atthopakon) 하원의장의 고문은 “이 타이전통의학에 관한 법안은 민간단체가 현 하원에 제출한 첫째의 법률안” 라고 밝혔다. 현 태국헌법 제 133 조 3 항에 따르면 10,000 명 이상의 태국 유권자가 하원에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이 법률안을 발의한 태국 유권자가 10,900 명이라서 헌법이 규정한 대로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타이전통의학에 관한 법안은 입법회의의장으로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하원의 입법절차에 진행하도록 그 법률안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 일본어 한국어과

니싸폰 쏿티만/ 번역

